

# 환경위생업무 분장 '조직개편' 발목 잡나

### 광주시교육청 규칙 개정안 직원·교원노조 양쪽 다 반발 2월 정기인사 일정 차질 우려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업무분장을 담은 규칙개정안이 업무분장에 이견을 보인 일반직 노조의 반발로 교육청 내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광주시교육청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 반발이 지속돼 규칙개정안 내부 심의·의결(교육청 법제심의위)→교육부 보고→규칙공포→조직개편(2월)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틀어질 경우, 코 앞으로 다가온 교원·교육전문직 정기인사마저 제때 단행하지 못하는 교육 행정 혼란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정된 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회의가 공무원노조

의 저지로 열리지 못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교육청 조직개편과 과(課)별 업무분장이 담긴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칙개정안에 담긴 업무분장에 반대 의견을 가진 노조원들이 부교감감을 비롯한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노조원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이유는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행정직 소관으로 규정할 원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에 따르면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건교사 직무로 명시됐는데, 교육청이 업무분장 과정에서 '환경위생 업무를 행정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에 담긴 업무분장은 교육청 분청과 교육지원청에 국한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노조는 "학교 현장

은 결국 교육청 업무분장을 따라가게 된다"며 환경위생 업무 '명문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학교 환경위생 업무분장 '명문화'를 두고 우려하는 것은 교원노조도 마찬가지다. 일반직노조와 달리 '교육은 교육국이, 행정업무는 행정국이 해야 한다'는 게 교사노조의 논리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시교육청이 임박하고 원안을 이유 없이 변경해 수질관리, 공기 질 측정, 방역, 저수조 청소 등 환경위생 업무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학교 환경위생 업무 분장을 두고 시교육청이 교사·일반직 노조 등 양 노조 틈에 끼어 있는 형국으로, 교육청은 갈음이 장기간 회담 조직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자칫 정기인사에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담은 규칙 심의가 노조원 반발로 무산될 줄은 몰랐다"며 "일반직 노조와 교원 노조를 잘 설득해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2월 초로 예정된 정기인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규칙 공포에 앞서 진행되는 교육부 규칙공포 사전심사에는 통상 2주가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규칙개정안을 법제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위생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학교에 따라 교사 또는 행정직이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반직 공무원노조 반발 등으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이 불발되는 과정에서도 학교 환경위생업무 분장이 논란이 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제철 맞은 장흥 자연산 굴 13일 오후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장흥군 남포마을에서 주민들이 마을 앞 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굴을 까고 있다. 남포마을은 마을주민이 직접 따온 자연산 굴을 장작불에 구워먹을 수 있는 곳으로, 겨울철이면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대 호남 최대 규모 동물병원 신축...2021년 완공

전남대학교가 반려 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호남권역 최대 규모의 첨단 의료설비를 갖춘 동물병원을 신축한다.

신축되는 '전남대 동물병원'은 연면적 6000㎡,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로, 현재의 수의대 2호관 자리에 건설된다.

1층은 외래진료 및 휴게편의시설, 2층 특화 검진 및 재활·입원 시설, 3층 멸균·수술실 등 청정구역, 지하 1층 MRI·CT

등 영상검진 구역으로 구성된다. 4·5층을 동물의료 연구 및 교육시설로 배치해 다차원적인 의료·교육 융합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올해 2월 착공해 2021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남대 동물병원은 그동안 연간 4000~5000건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공간으로서도 한계를 드러내 왔다.

손창호 동물병원장(수의대 학장)은 "첨단 의료장비와 최신 수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보호자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특히 선진국형 동물의료 기술 연구 등 임상수의학 발전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임상수의사를 양성하는 동물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달뜨기 12:19  
해질 17:42    달지기 00:10

마스크 챙기세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0:09	07:06	12:20	19:25
	07:49	02:01	20:51	14:13

◇주간 날씨

날짜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씨	☀	☀	☀	☀	☀	☀	☀
미세먼지	-1/8	-5/3	-3/6	-2/7	-3/6	-2/6	-2/6

### 이번엔 라돈 온수매트...원안위, 하이젠 매트 수거명령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전진천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대현하이젠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급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

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3만8000여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1만2000여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동물구호단체 케어 안락사 일부 시인... "불가피 했다"

동물 구호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동물권단체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 시켜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같은 폭로는 전직 직원에 의해 나왔으며, 케어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케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11일부터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케어는 "단체가 널리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더욱 쇄도했다"며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어의 설명과 달리 '이름없는 동물'이 안락사 1순위였다는 등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케어 직원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에 대한 결정이 박소연 대표와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뤄졌다"며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